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 미래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국비 과제와 국내외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전남 주력산업 탄소 중립 대응전략', '그린수소 메가클러스터 10개년 계획', '전남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들을 수립했다. 사진은 전남테크노파크 전경.



산업별협의회 구성, 지역기업 수요 발굴 탄소배출량 2050년까지 80% 저감 목표

유동국 원장 인터뷰

광주테크노파크에 이어 전남테크노파크의 수장을 맡고 있는 유동국 원장은 이 지역의 핵심·첨단·미래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조직 혁신에 나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평가에서 언제나 최우수 수를 받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정부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산업자원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 부처를 직접 상대하는 노련함도 갖췄다.



장동력위원회가 있는데, 지역혁신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기술 등에 대비하는 전남형 신산업을 발굴했다.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은 전남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및 기존 특구사업의 후속사업 기획·운영을 주도했다. 지역산업진흥협의회를 만들어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활동했다. 또 대학과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역균형 뉴딜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무엇보다 지역 각계 기업들이 참여하는 산업별협의회 10개를 구성해 지역기업 수요 발굴, 규제 개선 등 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 것이 의미가 크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5년째를 맞이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2010~2014)까지 더하면 10년째다. 지역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왔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영남권·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집중 투자 속에 지역 산업계가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전남테크노파크가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난 2021년에 적잖은 성과를 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와 전남도 정책에 부합하고, 통계에 기반한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4건이나 만들었다. 우선 전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속,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제조 혁신, 탄소순환·그린업 신성장 동력화 실현할 4대 전략, 30건의 과제를 도출했다. 이어 그린수소메가클러스터 10개년 계획에 4대 전략, 25건의 과제를, 전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10대 전략, 19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기반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3대 전략, 7건 과제를 마련했다. 이 계획을 통해 앞으로 정부 공모에 대응하고, 국비를 확보하면서 기업 및 투자 유치도 해 나가겠다.

-전남TP가 외부 전문가들과 활발히 만나고 있다.

▲지역 내외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참여시켜 위원회나 지원단, 협의회를 구성했다. 우선 성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듯 하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전남도의 2050 전남도 탄소중립 종합비전 선포에 발맞춰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을 지난해 5월 수립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97.4%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4대 전략, 12개 실행과제, 28개 세부사업(사업비 7220억원)을 도출했다. 이 전략과 과제, 사업들을 제대로 실행한다면 2017년 탄소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거점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원할 것이다. 혁신과 소통 그리고 속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업중심, 기술중심, 시장중심,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 어려운 시기 목표에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주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탄소중립·그린수소·4차산업 전남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박차

일자리 창출 구직자 취업연계 성과 정책·기술·네트워킹 거점으로 성장

전남도내 산업·경제 혁신의 전초기지이자 네트워크 거점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가 전남 미래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국비 과제와 국내외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관련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며 경쟁력 향상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 지역 인재들의 전남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 '그린수소 메가클러스터 10개년 계획', '전남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들을 수립해 올해부터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미래 산업 전략 수립 후 정부 과제 수탁, 기업 지원·일자리 창출=전남TP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관련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신규 공모사업을 수주하는 것이다. 전남TP는 지난해부터 17건(사업비 151.9억원)을 수탁해 일자리 창출 903명, 구직자 284명의 취업을 연계시켰다.

기반구축사업으로 '철강산업제도역 기술개발' 등 3건(539억원), 기업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6건(561.6억원), 기술개발사업은 '내플라즈마 원료소재 제조기술개발' 등 8건(418.6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기획과제 15건(2452억원)을 추진 중이다. 기반구축사업은 '첨단세라믹 지능형데이터 엔지니어링 실증' 등 5건(1355억원), 기업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일자리프로젝트' 등 4건(364억원), 기술개발사업은 '폐촉매 재제조 기술 개발' 등 6건(733억원)에 달한다.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903명(복표치 846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도내 기업 해외 진출 도움, 스마트공장 보급에 투자·기업유치까지=코로나 19 팬데믹 속에도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수출 협약 273만 달러, KOREA-UAE 에너지워크 수출 계약 300만 달러 및 17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줬다.

전남TP의 16개 해외비즈니스 센터와 64개 전남기업들을 연계해 76건의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을 주선했다. 해외 박람회 참석을 통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하자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을 통해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203개사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완료했는데 특히, 3년 연속 보급률 증가가 전남이 유일하다.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생산활동의 전반에 걸쳐 기획·설계에서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oT·AI·빅데이터 등)로 통합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전남TP가 스마트공장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 내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내 생산 현장부터 이에 맞춰 바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유동국 현 원장이 취임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서 2020년까지 287개사 보급을 완료했으며, 2021년에도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 약 273억원으로 201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전남의 열약한 생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모두 1300개사 보급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2022년은 전남테크노파크 20주년(2023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테크노파크를 만들기 위해 구상된 모두가 하나가 돼 기관 발전에 나설 것"이라며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의 정책·기술·네트워킹의 거점이 되기 위한 질적 성장에 나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가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지자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한 샘플을 16개 해외비즈니스 센터와 해외바이어들에게 직접 보내고 있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